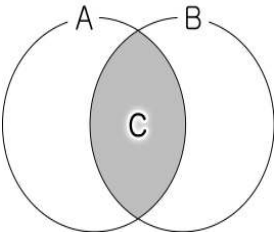


5. (가)의 A, B 사상을 (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때, C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p>A: 어떤 일이 생겼으면 곧 그 안에는 그 이(理)가 존재한다. 무릇 천지에 어떤 사물이 생겼으면 곧 그 안에는 그 이가 존재한다. 천하에 성(性) 밖의 사물은 없다.</p> <p>B: 내 마음의 양지(良知)가 이른바 천리이다. 이러한 천리를 사사물물(事事物物)에 실현하면 사사물물은 그 이를 획득하게 된다. 세상에 마음 밖의 이는 없다.</p>	

<보 기>

ㄱ. 인간은 선(善)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ㄴ. 인간의 마음과 성품을 서로 나누거나 구분할 수 없다.
 ㄷ.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야 인간의 본질이 구현된다.
 ㄹ.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상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갖는 의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렇게 쉽사리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데,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걷힐 리 만무하다. 하지만 ‘어둡다, 어둡다’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싶다. 나의 작은 실천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주변부터 밝고 따뜻하게 하고 싶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다.

<보 기>

ㄱ.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
 ㄴ. 이상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다.
 ㄷ. 개인의 이익 추구를 통해 사회적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ㄹ.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노력과 실천보다 사회적 목표가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전통과 현대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과 현대는 베틀의 날실과 씨실에 비유할 수 있다. 날실은 베틀의 바디에 걸려 고정되어 있지만, 씨실은 북을 따라 날실 사이를 왕복하며 베를 짜 가게 된다. 씨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베에 아름다운 무늬를 넣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씨실의 활공이 아무리 눈부시다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날실이 없으면 베를 짤 수 없고, 날실도 씨실 없이는 결코 베를 짤 수 없는 것이다.

- ①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현대는 전통의 가치를 그대로 계승할 때 의미가 있다.
 ③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모순·대립적 관계를 이룬다.
 ④ 현대는 과거의 정신으로부터 독립하여 미래를 지향한다.
 ⑤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8.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에서 제시한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자연의 본질은 저마다 본분이 정해져 있다. 몸이 짧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길다고 넉넉한 것이 아니다. 어찌 줄이고 늘이는 일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 제비와 참새도 짝이 있고 비둘기와 할미새도 짝이 있으며, 추운 지방 사람들은 틀림없이 솜옷과 가죽옷을 지어 입을 줄 안다. 스스로 그러하게 맡겨두면 이미 족하니 그 상태에 다시 무엇을 보태면 근심만 생긴다.

- ①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갖는다.
 ② 하늘이 부여한 심성을 바탕으로 도덕 사회를 추구한다.
 ③ 개인의 감각적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한다.
 ④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삶을 추구한다.
 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한다.

9. 그림의 대화에서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하는 수행 방법은?



- ① 마음 공부보다 경전 탐구를 중시한다.
 ② 우리가 본래 하나이며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한다.
 ③ 선악과 시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참된 앎을 실천한다.
 ④ 현실을 떠나 자신의 정신 세계에 몰입하여 해탈에 이른다.
 ⑤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지혜를 쌓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10.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문왕의 사냥터는 사방 70리나 되었지만 백성과 함께 썼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히려 좁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왕께서는 사방 40리의 사냥터를 혼자서만 쓰면서 그 안에 백성들이 들어와 사냥하거나 나무를 베면 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의 사냥터가 문왕의 사냥터보다 넓다고 여기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 가장 귀한 것이 백성이고 그 다음이 국가이며 가장 가벼운 것이 임금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입니다. 나아가 덕이 없는 임금, 즉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임금은 바뀌야 합니다.

- ① 사회 정의 실현보다 실질적 이익을 중시하였다.
- ② 군주가 있으나 다스림이 없는 정치를 이상으로 여겼다.
- ③ 백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인정(仁政)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 ④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좌망과 심재를 강조하였다.
- ⑤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길러지는 도덕적 기개를 강조하였다.

11. (갑), (을)의 대화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은 추상적 원리에 의해 사회와 역사 현상을 설명한다.

ㄴ. (갑)은 생산 방식이나 생산력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결정한다고 본다.

ㄷ. (을)은 사회 현상을 인간의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ㄹ. (을)은 물질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정신적 세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인간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명칭은 일을 실천한 이후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한 뒤에 인(仁)이라 한다.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 인이란 명칭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다.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義)라고 한다. 나를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는 명칭은 아직 세워지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서로 절하는 행동이 있고 나서 예(禮)라는 명칭이 성립한다.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智)라는 명칭이 세워진다.

<보 기>

ㄱ. 누구나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ㄴ.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다.

ㄷ. 선악은 구체적 실천보다 타고난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

ㄹ. 인간은 스스로 욕구를 발현하여 충족해 나가는 현실적인 존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눈앞의 현실 세계는 다만 인간의 고정 관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진실한 세계는 고정 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이다.

○ 유(有)가 유로 되는 것은 무(無)에 의지하여 생겨났고, 일[事]이 일로 되는 것은 무에 의거한 완성이다. 무릇 도(道)는 설명할 말이 없고, 명(名)할 수도 없고,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도는 이처럼 완전하다.

<보 기>

ㄱ. 세속적 윤리의 실천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ㄴ.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ㄷ. 우주의 본체인 현(玄)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ㄹ.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구제를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옛날에 위세가 당당했던 사람은 복고를 주장하고, 지금 위세가 당당한 사람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며, 아직 행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한다.

<보 기>

ㄱ. ㉠은 기존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일체의 변화를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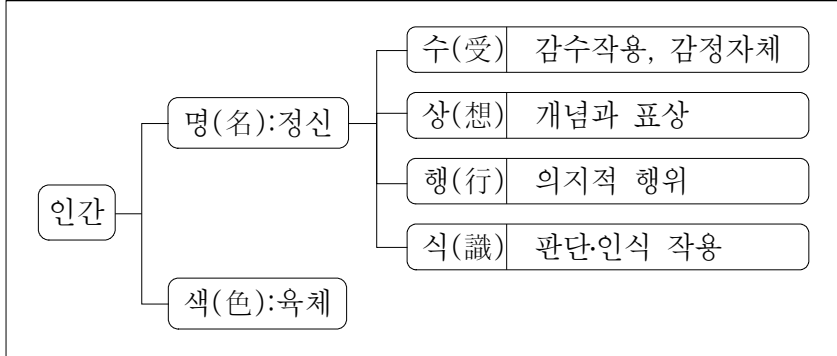
ㄴ. 유럽의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 초기 ㉡의 경향을 보였다.

ㄷ. ㉠은 주로 피지배 계급이 ㉡은 주로 지배 계급이 지지한다.

ㄹ. ㉠과 ㉡은 기존 질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과 같이 인간을 규정하는 사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는 삶
- ②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삶
- ③ 무아(無我)를 철저히 자각하여 자비(慈悲)를 실천하는 삶
- ④ 천도(天道)를 내면화하여 만물과 화육(化育)을 도모하는 삶
- 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

16. (가)의 관점에서 (나)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제자가 인(仁)에 대해 묻자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서면 사람을 큰 제사로 모시듯 하며,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나 집안에서나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나) 한 통계 조사 결과, 2005년 국내 초·중·고 다문화 가정 학생은 약 6천 여 명이며, 이들의 학업 중단율이 17.5%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다문화인의 42.2%가 교육, 고용, 혼인에 있어서 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법을 잘 지키고 따른다.
- ②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한다.
- ③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한다.
- ④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⑤ 자신과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7.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견해로 옳은 것은? [3점]

○ 옛날에 성왕(聖王)은 절용(節用)의 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를 용납하지 않았고, 장례를 간소화하고 노동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 만일 당신이 무슨 일 때문에 어딘가로 떠난다고 해 보자. 맡은 임무가 위험하고 길이 험해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면, 당신은 처자식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이 당신 가족을 돌봐 줄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아니면 당신 가족보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 ① 인위적인 지식과 학문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양심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데로 실천해야 한다.
- ③ 차별 없이 사랑하여 서로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④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해 외적으로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 ⑤ 세상을 화평하게 하려면 가족 간의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理)가 발(發)한 사단(四端)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하지만, 기(氣)가 발(發)한 칠정(七情)은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된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을: 이와 기는 관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을 하나로 보았다.
- ② 갑은 칠정 중에 선한 측면을 사단이라고 하였다.
- ③ 을은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을은 이기일원론의 입장에서 기의 능동성만을 인정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인간의 도덕성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시하였다.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남월(南越)에 한 고을이 있었다. 이 고을의 백성은 어리석고 순박하며, 사심이 없고 욕심이 적었으며, 경작할 줄은 알지만 사유(私有)할 줄은 모르며, 남에게 주는 것은 알지만 보답을 구하지 않고, 의(義)에 따르는 것도, 예(禮)에 순종하는 것도 모른다. 제멋대로 함부로 해도 결국은 ㉠대도(大道)로 나아갔다.

<보 기>

㉠.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서 절대적 실체이다.
 ㉡.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규범이다.
 ㉢.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수행 방법이다.
 ㉣.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릇 성인은 국가를 통치할 때 남이 내게 선행할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남이 내게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끔 하는 쪽을 채택한다. 남이 내게 선행할 것에 의지하면 나라 안에 열댓 명도 채 못 되겠지만, 남이 감히 나쁜 짓을 못하게끔 하는 쪽을 택하면 가히 한 나라를 가지런히 할 수 있다. 통치자는 백성을 통제하고 상벌을 확실히 하여 백성이 능력을 다하게 하며, 비방과 칭찬을 명확하게 밝혀 선을 권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①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민의를 기초로 한 인의(仁義)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 ③ 선한 본성의 회복을 위한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였다.
- ④ 통치에 있어 백성의 내면적 자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⑤ 법적 제재로 올바른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